



Walkerhill Show (1963-2012)

“워커힐쇼”는 1963년 워커힐호텔 개관 이래 2012년까지 48년간 운영된 워커힐 내의 공연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정부에서 워커힐의 건립을 추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관광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관광시설을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워커힐은 단순한 호텔이 아닌 리조트의 개념으로 건립되었으며, 개관과 동시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즉 워커힐쇼는 외국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호텔 공연이자 공연 관광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다.

Honey Bee Show (1963-1990s)

초기의 워커힐쇼는 공연단인 "하니비"의 이름을 따서 하니비쇼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고, 이 이름은 1990년대까지 워커힐쇼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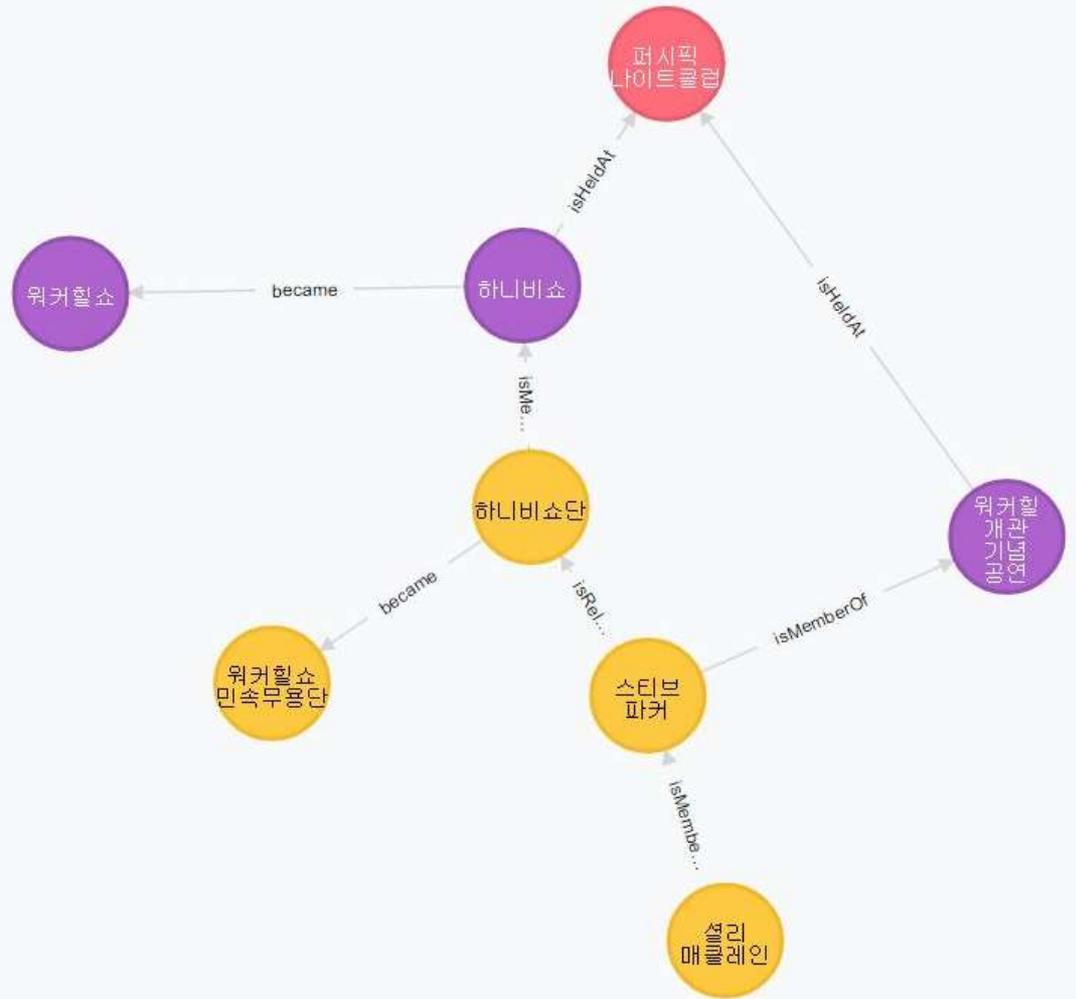
하니비쇼는 퍼시픽 나이트클럽이라는 식당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특이한 공연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등 외국인을 위한 전용쇼로서 외화 획득에 기여했고, 하니비쇼단이라는 무용단이 전부 내국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Honey Bee



경향신문 1962.10.23



하니비쇼단의 단원은 1962년 10월에 열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다.

허니비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은 162cm 이상의 신장과 고졸 이상의 학력, 18~21세의 나이로 엄격했다. 허니비는 선발과 함께 연구생이 돼 6개월에 걸쳐 발레, 고전무용, 국악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배우고 이것이 숙달되고 1년이 지나면 허니비 가무단에 편성돼 1시간 동안 민속, 라인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쇼를 보여줬던 것이다. 이런 허니비 가무단은 연구생이 70여 명이고 무대에 서는 현역은 35명 정도 규모였다.

(“60년대 쇼무대 지존 워커힐호텔”, 문화일보 10월 11일)

Honey Bee

초기 하니비쇼는 공연 기간이 불규칙적이었지만, 1978년 웨라톤 워커힐 호텔의 건립을 기점으로 하여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된다. 선정적인 공연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관객들은 모두 정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 내국인의 경우 정부 고위급 인사나 외국인과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공연장의 분위기와 관객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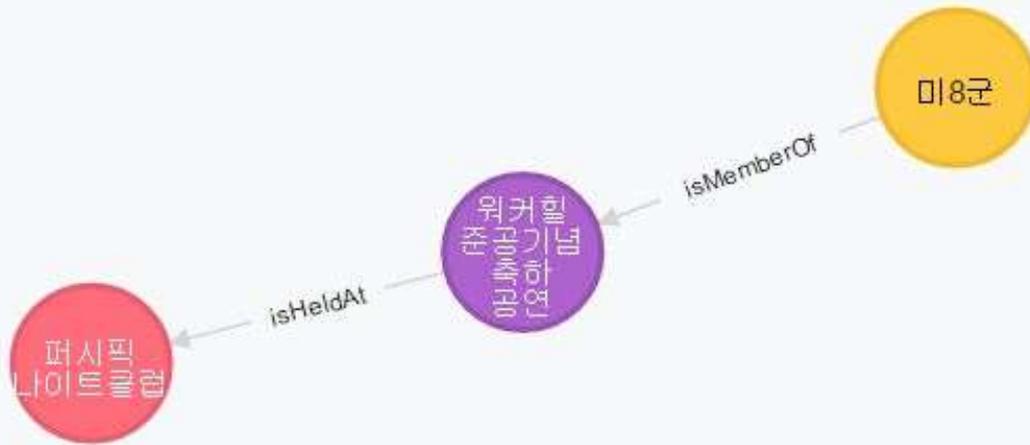


하니비쇼단은 워커힐호텔의 전속 무용단으로 민속쇼와 외국쇼 등을 공연하였다.

그리고 매년 군부대 위문공연과 양로원 방문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대만 제일호텔에서 첫 해외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하니비쇼단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워커힐민속무용단으로 개명되었다.

준공 기념 축하 공연 (1962.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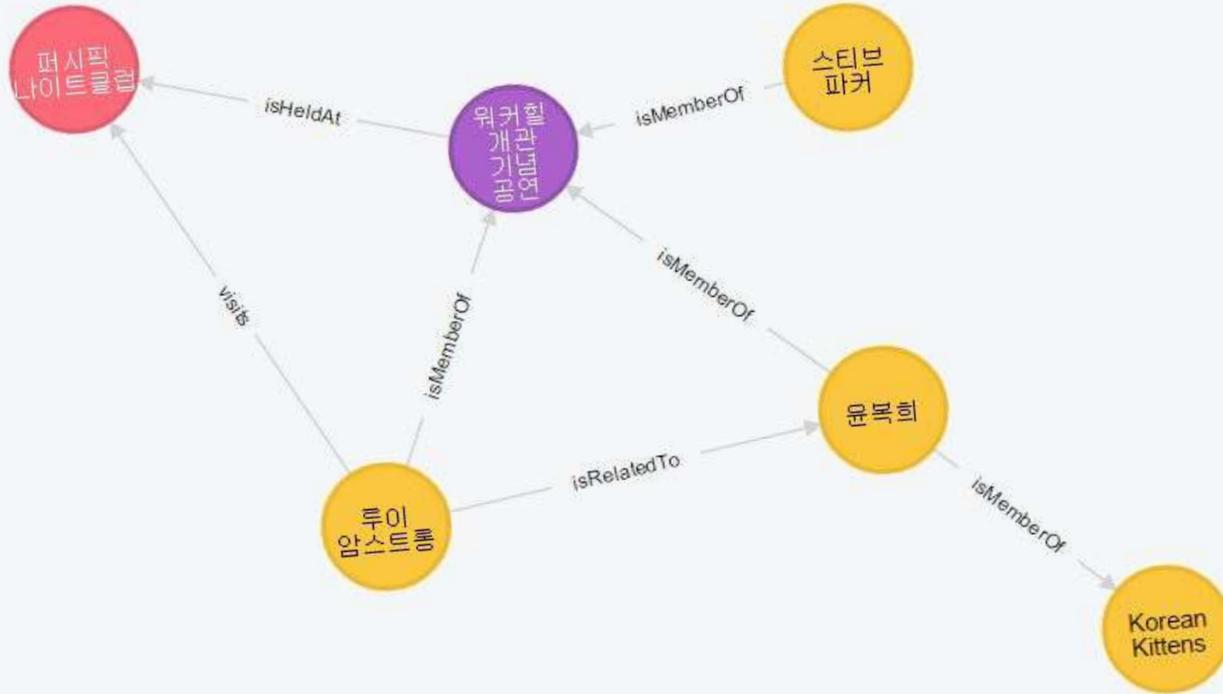
퍼시픽 나이트클럽 최초의 공연은 1962년 12월 26일에 열린 위커힐 준공 기념 축하 공연이었다. 당시에는 하니비쇼단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8군의 유니버설 예능단에서 공연을 담당하였다.

『위커힐』竣工

雄姿나타낸東洋最大의享樂地

동양의대급의 「밤보스」 오 2시부터 서울교외광나
 관광시설을 자랑하는 「위커힐」에 세워진 등전물내에
 「위커힐」은 모두 3
 26일 하서 창의장을비롯한 요인
 심5동의 건물중 二십六
 들참석리에 지행되었다.
 「위커힐」은 모두 3
 심5동의 건물중 二십六
 동이 준공되었으며 나머
 지九동은 연차계획으로세
 워질것이라는데 준공된건
 물의 내부장치등도 모두
 완성되었으나 개관은 오
 는 4월에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이 끝나자
 간단한 축하「파티」가 있
 었고회전무대에서는「쇼」
 도 보여주었다.

개관 기념 축하 공연 (1963.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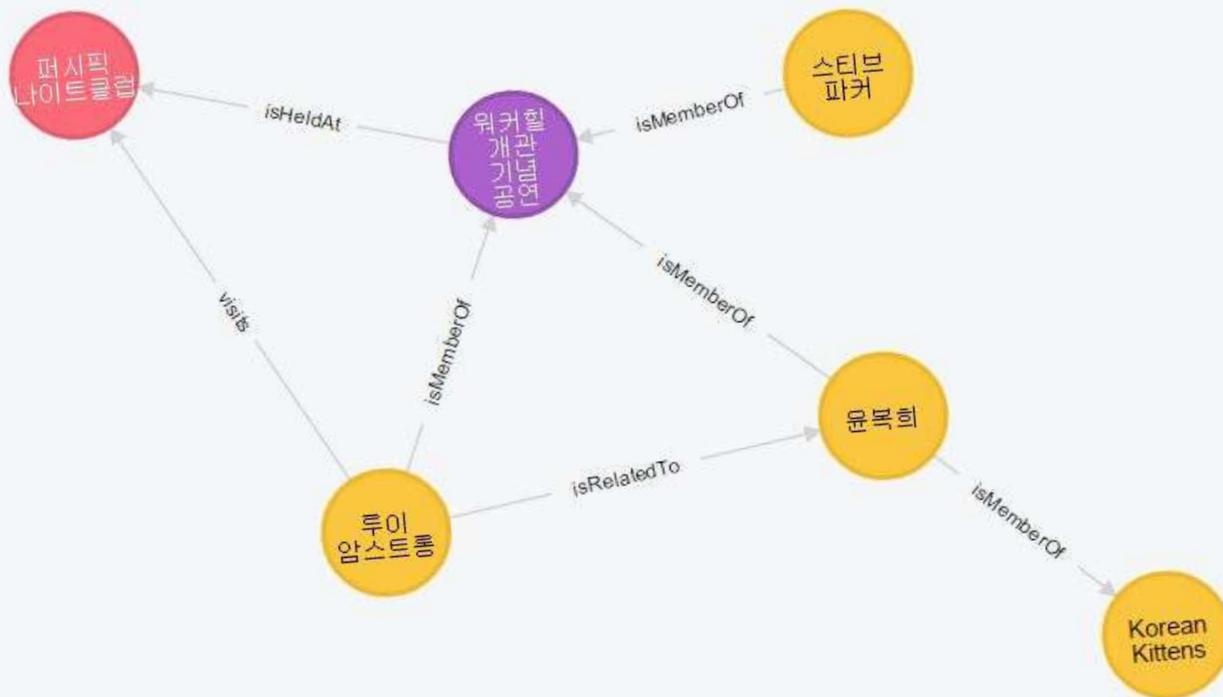


하니비쇼단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이듬해 열린 워커힐호텔 개관 기념 축하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할리우드의 공연기획자이자 제작자인 스티브 파커가 기획했으며, 파커는 부인인 여배우 셸리 맥클레인과 함께 워커힐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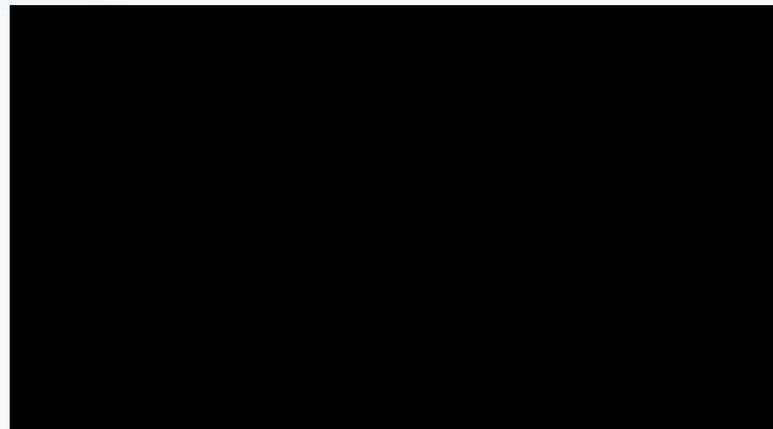
이 날은 미국의 재즈 가수이자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특별공연을 가지기도 하였다.

개관 기념 축하 공연 (1963.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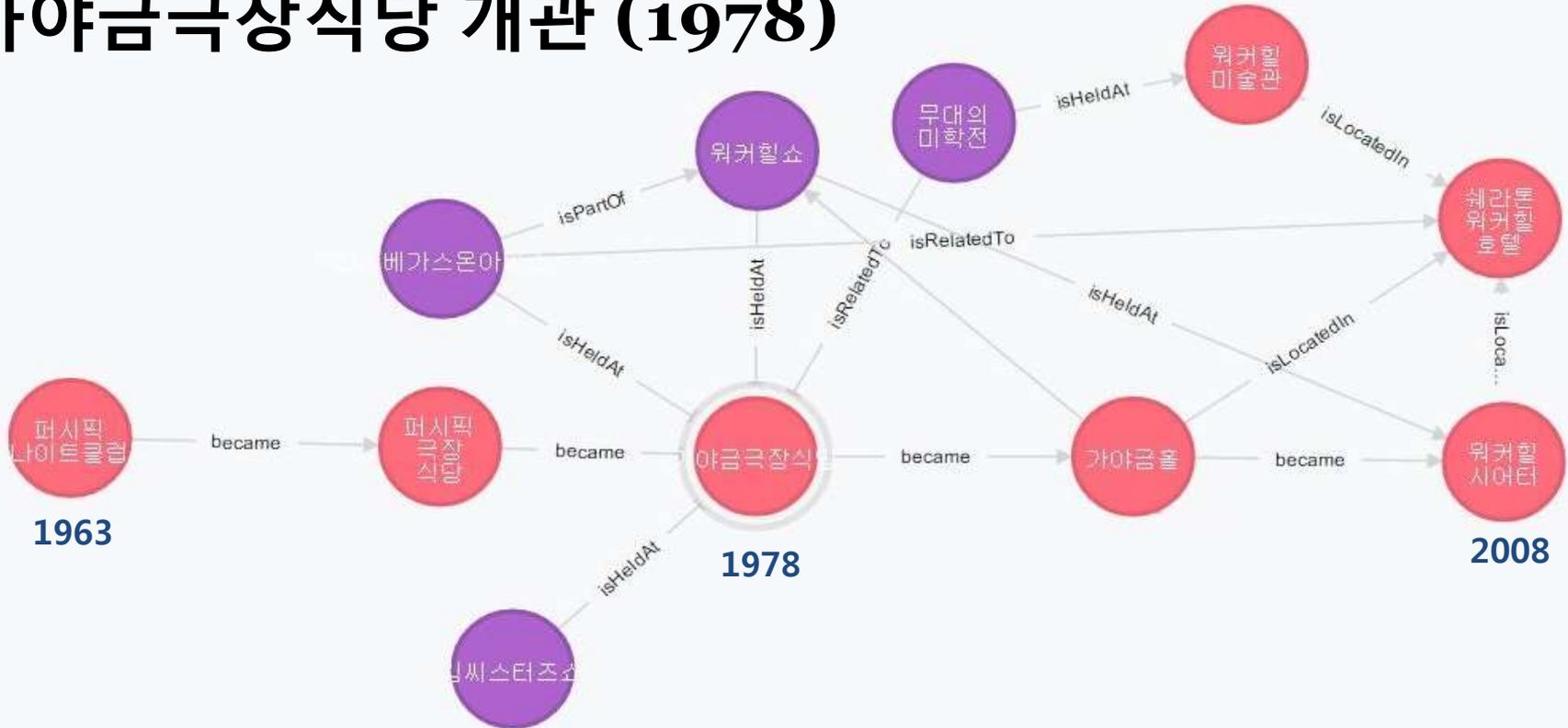


당시 15세였던 유복희가 이 공연에서 루이 암스트롱을 만났다는 에피소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미8군 무대에 출연하던 유복희는 루이 암스트롱의 모창을 해서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공연 마지막 무대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의 목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유복희는 해외에 진출하여 Korean Kittens 라는 4인조 보컬그룹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가야금극장식당 개관 (1978)



워커힐쇼는 1978년 가야금 극장식당이 개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워커힐쇼 공연장은 구 본관 1층에 위치해 있던 퍼시픽 나이트클럽(퍼시픽 극장식당)이었지만, 신규 호텔이 건립됨에 따라 지하 1층에 가야금 극장식당이 개관하였다.

새로운 극장식당은 관객 수용 규모가 2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lifting stage, wagon stage, turn table stage, gondola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연장이었다. 당시 국내의 무대장치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쇼디자이너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세트디자이너 등이 영입되어 극장이 완성되었다.

1987년에는 워커힐쇼의 무대장치를 전시하는 "무대의 미학전"이 워커힐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Las Vegas On Ice (1978.07.12-11.30)



1978년에는 가야금 극장식당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라스베가스 온 아이스"라는 특별쇼가 공연되었다. 라스베가스의 아이스쇼단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 공연은 실내에 설치된 특수 아이스링크를 통해 한여름에도 아이스쇼를 공연할 수 있었으며, 가야금 극장식당의 우수한 무대 시설을 자랑하기에 충분하였다. 원래 약 한 달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평균 53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자 연장공연을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해 11월 말까지 5개월간 총 8만명 이상을 매혹시킨 공연이었다.

김씨스터즈쇼 (1980.03.08-04.17)



가야금 극장식당에서 열린 또 하나의 특별공연은 김씨스터즈의 내한공연이었다. 김씨스터즈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두 딸과 이난영의 조카로 이루어진 3인조 여성 그룹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에서 공연을 하다가 1959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갔고, 현지 쇼기획자의 눈에 띄어 1970년대까지 라스베가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김씨스터즈의 리더인 김숙자는 2014년 3월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워커힐, 「가야금극장식당」에서
“김씨스터즈” 고별공연



미국쇼의 본고장 라스베가스에서 전세계 연예계를 누르고 정상으로 한국의 이름을 떨친 금세기 한국이 낳은 자랑— “김씨스터즈”가 전속악단과 귀국하여 한국팬에게 고별공연을 갖습니다.

- 공연기간 : 1980년 3월 28일~4월 17일
- 공연 시간 : 1부 17:00-19:00
2부 19:30-21:30
- 예약 및 문의 : 444-8211/9 교환 1376, 1377, 1378
- 시내사무실 : 72-8993/4
상선 예약을 하세요.

교통편 : 왕복 조흥은행본점앞 워커힐 교통버스
오류 4시 및 6시30분 출발

예매처 :

- 워커힐 여행사 (776-9801-4)
- 아사리 안경 (776-3315)
- 신주 영건도 (778-3375)
- 광주 박현정관리단체 (777-3567)
- 워커히곡물영양분 (74-1910, 1202, 5497)
- 새고세미 기타 (74-6161)

세계호텔의 명문 
쉐라톤 워커힐

김씨스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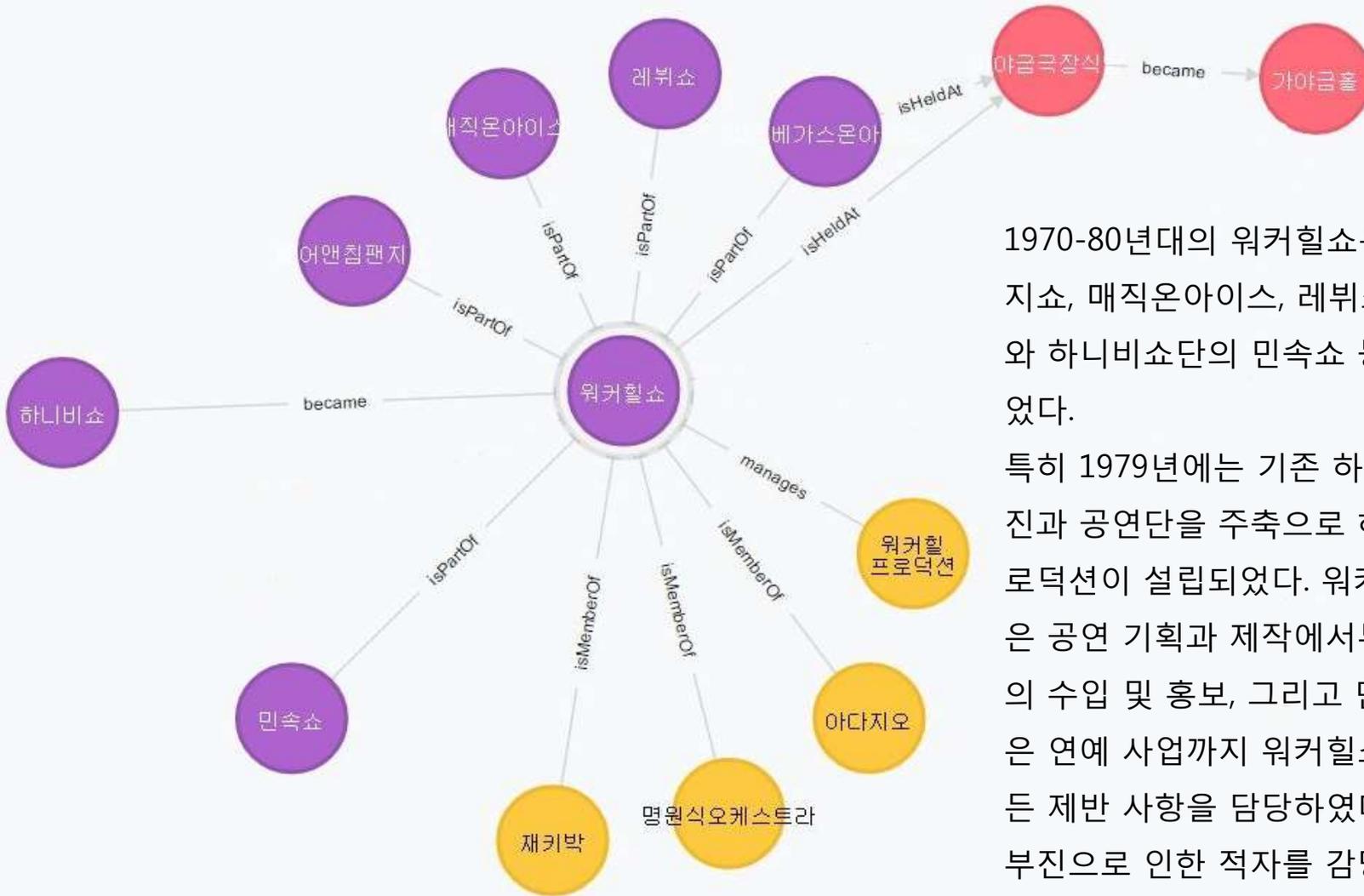
1959.09.20

Ed Sullivan Show



김씨스터즈가 미국에 진출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Ed Sullivan Show 라는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TV쇼에 출연하게 되었다. 1959년 9월 20일 이 공연 무대에서 김씨스터즈는 함께 출연한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게 되고, 루이 암스트롱은 한국에서 온 김씨스터즈에게 관심을 보이며 따뜻하게 응원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970-80년대 워커힐쇼



1970-80년대의 워커힐쇼는 에어앤칩팬지쇼, 매직온아이스, 레뷔쇼 등의 외국쇼와 하니비쇼단의 민속쇼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979년에는 기존 하니비쇼의 제작진과 공연단을 주축으로 하여 워커힐 프로덕션이 설립되었다. 워커힐 프로덕션은 공연 기획과 제작에서부터 외국 공연의 수입 및 홍보, 그리고 단원 관리와 같은 연예 사업까지 워커힐쇼와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1981년 워커힐 프로덕션은 결국 웨라톤 워커힐에 합병되었다.

1980-90년대 워커힐쇼



워커힐쇼 MC 재키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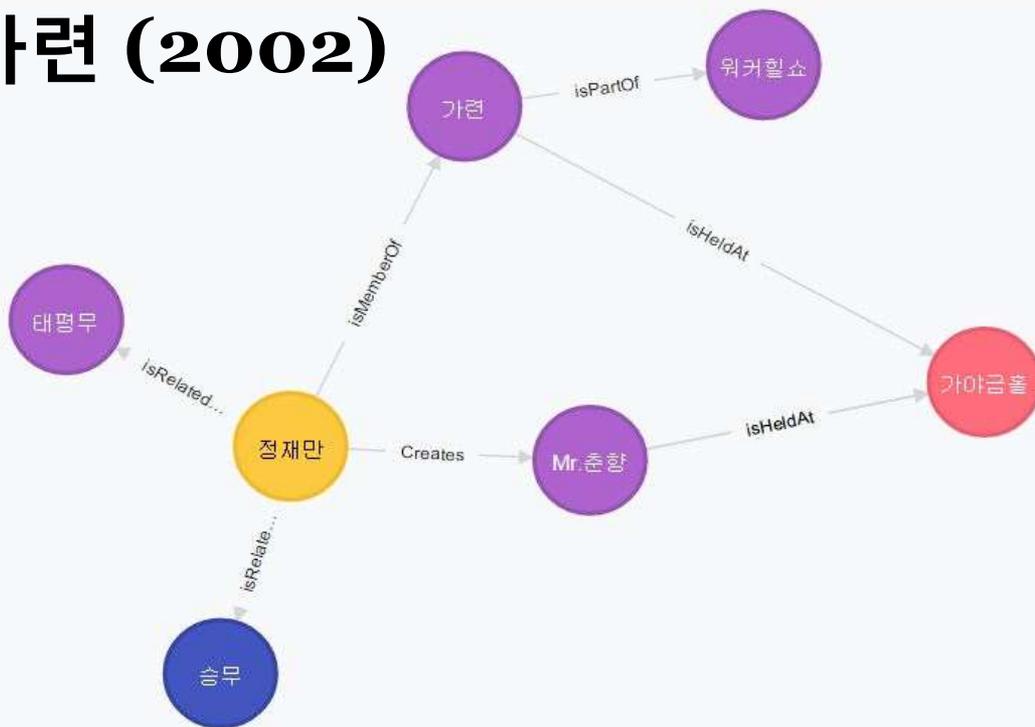


명원식 오케스트라

워커힐쇼는 재키박이라는 한국인 사회자 겸 가수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3개 국어로 워커힐쇼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또한 명원식오케스트라라는 전속 악단이 현장에서 쇼의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까지 워커힐쇼의 민속공연 레퍼토리는 가야금 병창, 북춤, 탈춤, 군무, 살풀이, 사물놀이, 부채춤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 밖에도 민요, 대중가요, 코미디 퍼포먼스 등이 함께 공연되었다. 이렇게 특정 주제나 제목이 없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교차하며 이루어진 워커힐의 민속공연은 2002년 공연된 '가련'을 기점으로 정통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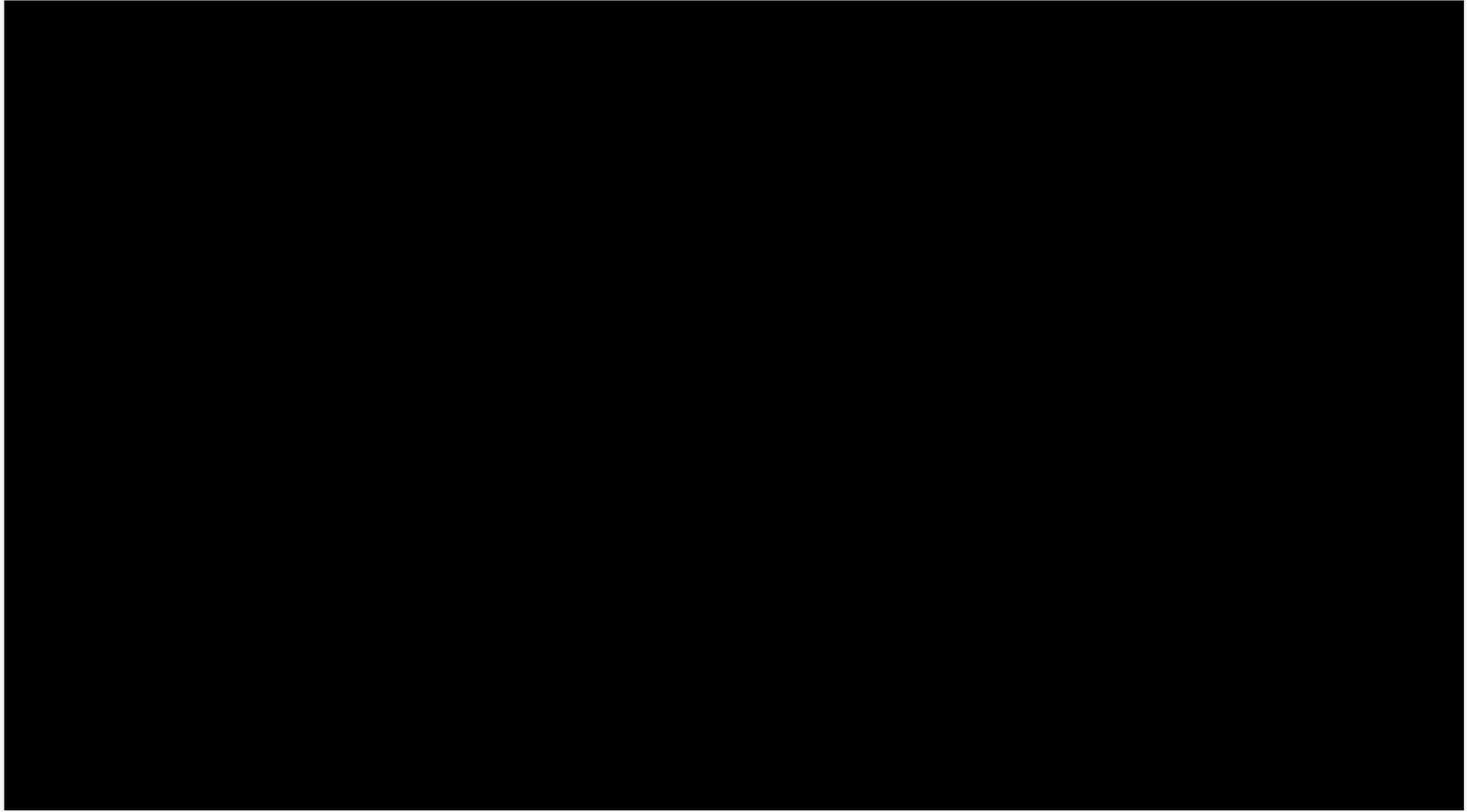
가련 (2002)



이전까지 사용한 전통쇼라는 이름 대신 전통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가련'이 무대에 올려지던 2002년부터였다. '가련'은 무고, 화관무, 태평무, 교방무, 장고춤, 바라춤, 부채춤 등과 같은 한국의 전통무용을 소재로 한 공연이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의 예능보유자인 故 정재만(1948~2014)이 안무를 맡았고, 전통무용을 전공한 무용수들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동방의 빛 (2009)



'가련' 이후로도 워커힐쇼는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 2006년에는 드라마 대장금을 모티브로 한 '대향연'이 제작되었고, 2009년에는 사물놀이, 승무, 탈놀이, 오고무 등 한국의 전통무용으로 구성된 '동방의 빛'을 선보였다. 그러나 '동방의 빛' 역시 흥행에 실패했고, 워커힐은 2010년 '꽃의 전설'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꽃의 전설 (2010-2012)



2010년 초연된 '꽃의 전설'은 워커힐에서 자체 기획, 제작한 워커힐쇼 최초의 단독 민속공연이었으며, 한국 전통무용과 연희에 마살아츠와 비보잉 등을 접목한 공연이었다. 이후 내용을 개편한 '꽃의 전설 2'가 2011년부터 공연되었지만 여전히 관객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누적된 적자와 관객 감소로 인해 2012년 3월 '꽃의 전설2'는 막을 내렸고, 이것이 워커힐쇼의 마지막이 되었다.